



노치형 목사
(충주로공동체)

2024년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설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 뒤 검소한 선물이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처럼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림의 익숙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순간의 기다림부터 오랜 기다림까지 기다림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전화를 기다립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기다립니다. 자판기와 계산대 앞에서 기다립니다. 버스나 택시, 지하철이나 기차, 배나 비행기로 어딘가에 가기 위해 기다립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상황을 따라, 마음 상태를 따라 순간처럼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기다림은 순간과 영원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서는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됨’의 과정 사이 성취의 기쁨을 향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창 1장). 하지만 뱀의 거짓에 미혹되어 행하게 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와 타락 이후부터는 다시 창조의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사 5:4).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어 채워질 수 없는 탐심을 채우

고자 하는 죄악에 더러워져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용서의 은혜와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아벨 형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으며(창 4장),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던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방주에서 물이 줄어 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내 보기도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기다려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무지개 약속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창 6-9장, 시 40:1, 히 11장).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나가는 말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2024년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심 없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롬 8:23, 갈 5:5, 빌 3:20-21).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선포한 사도 바울의 외침을 실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딤후 4:1-2).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304, 통404).....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이사야 30:18.....	가족 중에서
설교	기다림이 주는 복(福).....	설교자
축복의 마음 나누기.....		다같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새301, 통460).....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기다림이 주는 복(福)

들어가는 말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약이 있건 없건, 짧은 길건 간에 ‘기다림’은 우리에게 너

무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 조금 더 나아지리라는 기약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더는 기다릴 수 없어’라는 생각에 묶여 사랑하는 가족, 소우, 살아갈 소망, 인생의 목표와 승리의 성취 등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 버리기도 합니다.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121:1~8.....	다같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305, 통405).....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히브리서 10:19~25.....	가족 중에서
설교	희생양이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	설교자
찬송	어지러운 세상 중에 (새340, 통366).....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희생양이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

들어가는 말

조그만 소년이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다가가 멈춰서더니 그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신사는 절망하고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그림에 열중

하던 소년이 그 신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예요.”
그 신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소년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로마 군인들이고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신사가 “너는 어디에서 그것을 배웠니?”라고 물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요.”

그 신사가 고민 속에 미술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못 가 누군가 뒤에서 부르며 달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소년이 뛰어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뛰어왔어요.”

소년이 잊어버릴 뻔했던 그 말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해 잊히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생명이 죽음을 이긴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함께 죽음에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고, 절망이며,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으로 함께 죽음을 이긴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신사의 모습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쏟아내신 그 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히 10:22). 우리는 담대한 증거자 꼬마처럼 죽음을 이겨낸 생명의 승리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가는 말

혹시 우리는 이 승리의 이야기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사랑 선포를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롬 8:37-39).